

2023년 02월 1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3편 5~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342(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16장 18절 ~ 17장 5절(구약p.777)

16장

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22.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7장

1.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2.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3.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4.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5.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 ◎ 말씀선포 / 욥이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시련 속에서 외치는 탄식은 사람들을 향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은 한계가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해와 공감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는 욥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욥을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모습은 고

난 당하는 욕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절망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 생각과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욕이 시련 중에 찾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 1. 증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 욕은 친구들의 조언에 지치고 낙심하여 크게 탄식합니다.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가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가인의 손에 맞아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듯이 자신도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8~19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기에 욕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증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살피시기에 정죄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본문 20~22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욕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모순된 표현이지만, 욕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욕과 같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모든 사정을 아시며 해결해 주시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며,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아시는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욕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 2. 보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 욕은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본문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보증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가 가진 빛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입니다. 욕은 자기 몸 하나 지탱할 힘이 남아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련 속에서 곧 죽음을 맞이할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고 사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무자비한 채권자처럼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긴 것입니다. 17장 1~2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

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총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참으로 지금 옴의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요, 그 누구도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오히려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일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비참하며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달라는 표현은 앞 단락의 간구와 같이 모순된 표현입니다. 채권자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달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중에는 하나님이 무고한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생각하여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권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듯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오늘 나의 삶의 주권자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 인생의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환란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비록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우리 죄를 위한 대가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육체의 질병과 자녀의 모든 문제, 지금 눈물로 한숨짓게 하는 바로 그 문제를 인자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다 듣고 계시며, 이미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아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으로 인해 마침내 독수리같이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37(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 ◎ 폐 회 / 주기도문